

# 신화철강, 새만금 산단에 120억원 투자

### 전북도-새만금개발청-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와 '육·수상 태양광 구조물 제조시설' 건립 위한 협약 체결

전북도는 16일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주)신화철강과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에 '육·수상 태양광 구조물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운동욱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장을 비롯해 양창모 새만금개발청장, 신현승 군산시 부시장, 김우상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부장, (주)신화철강 김중화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신화철강은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소재한 철강 구조물 제조 기업으로, 지난 4월 관계사인 케이스틸과 함께,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100MW(6천톤) 구조물을 수주해 납품하고 있다.

(주)신화철강은 오는 2022년 4월까지 새만금 국가산단 1공구 내 3만4,200㎡ 부지에 120억 원을 투자해 육·수상 태양광 구조물 제조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30여 명의 지역인력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주)신화철강은 앞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협력지구) 입주를 통해 육·수상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인접한 군산항 등을 활용해 해외 수출에도 매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이번 투자유치로, 신규 고용창출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상승효과)는 물론, 재생에너지 산업 메카로서 새만금의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도는 16일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주)신화철강과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에 '육·수상 태양광 구조물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신화철강 김중화 회장은 "새만금 투자를 통해 산업위계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에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양창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협력지구) 내 태양광·풍력·에너지 저장장치 등 관련 제조기업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다"

며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발전단지 구축과 함께 관련 기업, 연구기관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운동욱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새만금지역 투자유치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기업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과 새만금지역 투자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운동욱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 주춤했던 새만금지역 투자유치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기업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과 새만금지역 투자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북도, 해수욕장 안전·방역관리 총력 대응

전북도가 도내 해수욕장의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대응한다.

도는 7월 9일 군산 선유도, 고창 구시포, 동호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10일 부안 변산, 격포, 고사포, 모항, 위도 해수욕장이 개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전북도는 여름철 피서객 증가로 코로나19 재확산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방역관리자 지정, 안전·방역요원 배치 등 철저한 예방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코로나19 예방 활동과 확진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군별 해수욕장의 코로나19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현장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

또한, 해수욕장 전역에 안전 및 방역

감시망구축을 위한 펜스를 설치한다.

전년 대비 5명 증원된 137명의 안전요원 및 방역요원 58명을 배치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검사소 24개소를 운영한다.

이용객이 손 쉽게 방역에 참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 활용한다.

먼저, 출입 관리를 위해 전화로 출입 기록을 저장하는 안심플과 QR코드 방식을 도입한다.

실시간으로 발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온스터커도 배부한다.

특히, 해수욕장 혼잡정보를 네이버와 카카오(다음) 누리집, 바다여행 누리집에 제공하는 혼잡도 신호등제를 통해 이용객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하반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재개

전북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가속화로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의 일상 회복이 기대되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교육은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시설종사자,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도서벽지 학생 등 교육을 희망하는 도민이다.

도는 하반기부터 오는 연말까지 성폭력예방교육 22회, 가정폭력 예방교육 30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교육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발생과 불법 영상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 수

법이 점점 다양해지는 경향에 맞춰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체육계의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 제고와 인식개선을 위해 운동부 학생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문의나 신청은 전라북도 지원기관인 성폭력예방치료센터(063-717-0151)나 인터넷사이트 예방교육통합관리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김종남 도 여성청소년과장은 "교육을 받은 도민이 나의 행동을 지키는 것 뿐 아니라 주변에 관심을 갖고 지역 안전 파수꾼으로서 예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도내 6개 마을기업, '메가쇼 시즌1' 참가

### 도, 전용부스·컨설팅·홍보영상 제작·방영 등 지원

전북도가 도내 마을기업이 대형 박람회에 참가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도는 도내 마을기업 6개소가 17일부터 2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메가쇼 시즌1'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전북도는 도내 마을기업 전용부스 및 컨설팅 지원, 홍보영상 제작·방영 등으로 기업의 판로 확장을 돕는다.

이번 박람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출 향상을 위한 오프라인 기획전으로, 제품판매와 신제품 쇼케이스 등을 진행한다.

박람회에는 전주 학전(꽃차 및 생강진액), 전주한옥마을(지수 공예품), 장수 하늘꽃간(사과즙), 장수 백운(김·뽕잎 부각), 고창 백

련(연잎밥, 국수), 순창 쌀엿(고추장, 쌀조청) 등 6개 마을기업이 참가한다.

이들은 각 지역 대표 농산물을 활용·생산한 제품을 정가의 15%에서 최대 30%까지 할인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등 적극적인 소비자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도는 마을기업이 효과적인 홍보·판매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홍보 방법, 제품 디자인, 쇼룸 구성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했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대규모 오프라인 박람회 참여는 도내 마을기업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을기업 홍보와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어린 미꾸라지 119만 마리 방류

###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환경 개선·친환경 해충 방제 효과

전북도가 미꾸라지 인공부화 특허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어린 미꾸라지 119만 마리를 도내 하천에 방류한다.

도 수산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내수면 어족자원량 확대와 생태계 보호를 위해 자체 생산한 어린 미꾸라지 119만 마리를 17일 도내 6개 시·군 하천에 방류한다고 16일 밝혔다.

시·군별 방류량은 김제 광활천 25만 마리, 고창 주진천 20만 마리, 완주 만경강 20만 마리, 임실 섬진강 17만 마리, 장수 금강 17만 마리, 부안 신운천 20만 마리다.

방류 예정인 어린 미꾸라지는 올해 4~5월경 건강 상태가 우수한 모체(어미)를 확보해 전북도 자체 특허 기술로 육성한 4cm 이상의 건강한 미꾸라지다.

이에 연구소는 도내 농·어업인의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꾸라지는 연간 국내 소비량이 1만톤 전·후로 대국민 기호도가 높고, 식생활과 밀접하며, 모기퇴치 효과 등 인기가 많은 품종이다.

미꾸라지는 바닥으로 잠입하거나, 작은 수서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 저질을 파헤치는 습성으로 하천이나 호수의 바닥에 산소를 공급시켜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한 마리가 하루 1,000마리 이상의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도



심 인근의 친환경 해충 방제 효과가 탁월하다.

아울러, 균형 잡힌 영양으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비타민A 함량이 높아 생체막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조절해 신체 저항력을 강화시키고 시력 보호에 도움을 준다.

잡액 내 미진과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잔내 소화 흡수와 피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연구소는 이러한 경제적·환경적 이점이 있는 미꾸라지를 연구개발해 전국 최초 '미꾸라지류 대량 인공종묘 생산방법(제10-1169013호)'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매년 120만 마리 규모의 어린 미꾸라지를 도내 하천에 지속적으로 방류해 왔다.

전병권 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어린 미꾸라지 대량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내수면 수산 자원량 확대와 도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내수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조직변경공고**

본 회사는 2021년 6월 16일 임시사원총회에서 사원권원인제에 의하여 주식회사 전주매일미디어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6일  
유원회사 전주매일미디어  
전라북도 완주군 방동읍 낙평신기길 67-9  
공동대표이사 권순환 공동대표이사 윤원현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http://www.ijmaeil.com)